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대박’

거진선적 정치망어선 C호 ... 울산 방어진수협에서 3천600만원에 위판

거진 선적 정치망 어선이 동해 상에서 조업 중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혼획했다. 혼획은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께 어획되는 것을 말한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께 거진항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15톤급 정치망 어선 C호가 그물에 죽은 채로 걸려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혼획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5m, 둘레 2.4m, 무게 약 1톤이다. 해경 조사 결과 꼬리부분이 그물에 쓸려 외피가 조금 벗겨진 상태이지만, 창살류 등을 이용해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진 선적 정치망 어선 C호는 이날 새벽 3시경 거진항을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정치망 양망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지역 위판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울산고래축제가 열리는 울산 방어진수협으로 옮겨 3천 6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해 들어 영동북부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22마리이며, 밍크고래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최광호 기자



거진 선적 정치망 어선 C호가 지난 17일 새벽 정치망 양망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혼획해 항구에 내려놓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고성군,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자원 재활용

고성군은 농약빈병과 폐비닐 등을 수거해 농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가별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뒤 분기별로 폐비닐 kg당 100원, 농약빈병류(재질무관) kg당 500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성지역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거사업장에서도 농가에서 수집한 다량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흥천수거사업소로 보내 재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농경지에 방치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원이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영농폐기물 수거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축협 한우 특별 할인 판매

고성축협 하나로마트 거진점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구제역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지역 주민들과 경제적 고통분담을 함께 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령 한우 전 품목에 대해 고객사는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간성우체국 FC(보험설계사) 大모집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선진우정기업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보세요”

- ◇자 격 : 중졸 이상(남·여)
- ◇주요업무 : 우체국보험 모집(부업, 겸업 가능)
-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 ◇보 장 : 수당 및 급여 50만원~무한대
- ※보험 모집에 필요한 고객사은품을 지원합니다



간성우체국 681-1110, 2220